

16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세요



배를 말씀

마태복음 14:22-33

읽을 말씀

마태복음 14:31-33

외울 말씀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마 14:32-33).

메인 아이디어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포인트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어려움을 맡기라!

목표

- ❶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어 풍랑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구해주신,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믿는다.
- ❷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모든 어려움을 맡긴다.

준비물

성경, 생각마당 시각자료 16과, 말씀마당 그림책(가림막, 별지 16과 ‘예수님’), 어린이용 교재, 필기도구, 풀, 재접착 메모지, 빨대(또는 나무젓가락), 투명 테이프, **㉠** 질문 카드 16과, **㉡** 가위, **㉢** 주사위

설명

제자들은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이동하던 중에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새벽까지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던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한 형체를 보았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마 14:28)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오라”(마 14:29)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물에 발을 내디뎠고, 예수님은 바다를 다스리셔서 베드로가 안전하게 그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지만 베드로는 곧 물에 빠지고 말았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건져주셨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마 14:33)라고 고백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이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풍랑으로 인해 고통받는 제자들을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셨다. 예수님은 바다를 다스리셔서 그 위를 걸기도 하시고,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의 위협뿐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때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 어려움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16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게 하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자.

핵심 단어

창조주 예수님 | 예수님은 창조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만드셨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다스리며 운행하고 계신다. 따라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생각마당

READY!

- ① 성경을 준비한다.
- ② 생각마당 시각자료 16과를 접는 선을 따라 미리 접어 준비한다.

GO!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생각마당 시각자료 1번을 보여주며) 수진이가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어려워서 풀 수가 없대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대답을 들은 후 생각마당 시각자료를 돌려 2번을 보여주며) 그래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생각마당 시각자료를 뒤집어 접은 후 3번을 보여주며) 저런, 동수가 길에서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대답을 들은 후 생각마당 시각자료를 돌려 4번을 보여주며) 그래요.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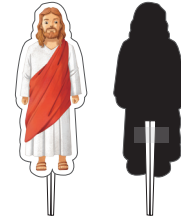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마태복음 14장 31-33절을 어린이들과 함께 읽은 후, 말씀마당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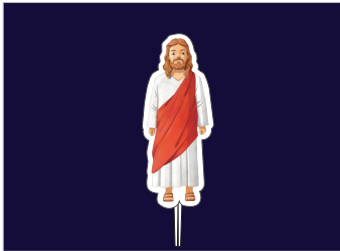
말씀마당

READY!

- ① 말씀마당 그림책 16과를 준비한다.
- ② 말씀마당 그림책 가림막을 16-1 앞에 끼워둔다.
- ③ 말씀마당 그림책 별지(16과 '예수님') 뒷면에 투명 테이프로 빨대(또는 나무젓가락)를 붙여 막대 인형으로 만들어둔다.



GO!



(가림막 앞에 '예수님' 막대 인형을 대고 보여주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고 모여 있던 사람들을 홀어 보내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가림막을 제거하고 16-1을 보여주며) 새벽이 되자 바다에 거친 바람과 큰 파도가 일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는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그리고

높은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물이 들어와 금방이라도 배가 물에 잠길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 막대 인형을 뒤쪽이 보이도록 하여 배에서 먼 곳으로부터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며) 멀리서 누군가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 뒷면으로 이동 후 뒤집는다.



거친 파도 위를 걸어오는 분은 누구실까요?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 소리쳤어요.

“으악, 유령이다!”

그러자 거친 파도 위를 걸어온 분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막대 인형을 돌려 앞면을 보여주며)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만일 예수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배 밖으로 발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어요. 물론 물 위를 걸어서 말이예요.



(16-2 옆에 ‘예수님’ 막대 인형을 두고) 하지만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거친 파도를 보자 너무나 두려워 위 의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거친 파도로 인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의심했던 베드로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소리쳤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고, 거센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구해주셨어요.



(‘예수님’ 막대 인형을 베드로 쪽으로 이동하며)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16-3을 보여주며)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어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마 14:33)

GO!

오늘 배운 말씀을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나요?
(거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가 잠길 것 같은 위험에 빠졌어요.)

㉮ 예수님은 거친 바람과 파도로 위험에 빠진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셨나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 베드로는 물 위를 걸다가 빠지고 말았어요. 왜 물에 빠졌을까요?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 거친 파도로 인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1.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되었나요?
(바람이 멈추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2.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었나요?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3.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앞에서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구해주셨어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맡기면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저를 따라 외쳐 보세요.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어려움을 맡기라!”

㉮

READY!

- ① 예수빌리지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질문 카드 16과'를 다운로드하여 양면으로 인쇄한 후 자른다.
- ② 질문 카드를 얹어놓은 후, 주사위를 준비한다.

GO!

- ① 학교의 학급 번호가 낮은 어린이부터 두세 명씩 조를 만든다.
- ② 조별로 한 명씩 나와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와 같은 숫자가 있는 질문 카드를 가져간다. 단, 같은 숫자의 카드를 다른 조가 먼저 가져간 경우, 남아 있는 질문 카드의 숫자가 나올 때까지 주사위를 던진다. (카드가 남을 경우, 카드가 소진될 때까지 주사위를 던진다.)
- ③ 카드의 질문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답을 찾은 후, 질문과 함께 답을 이야기한다.
- ④ 주사위는 이후(20, 24과)에도 사용하므로 잘 보관해 둔다.

READY!

- ① 필기도구와 풀을 준비한다.
- ② 재접착 메모지(51×76mm)를 여유롭게 준비한다.

GO!

1.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

여러분, 거친 바람과 파도를 이길 수 없어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인가요?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다. 어린이들이 어려워할 경우, 교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준다.)

- 예 • 저는 무서운 꿈을 자주 꾴요. 무서운 꿈 때문에 울면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 부모님이 자주 다투세요. 부모님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 무섭고 속상해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제가 재접착 메모지를 나누어줄게요. 이 메모지에 조금 전 여러분이 말했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적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2. 만들기를 완성한다.

이제 어린이용 교재의 활동지를 떼어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만들기를 완성해보세요. (시간을 준다.)



3.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말긴다.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을 듣는다.)

맞아요. 바로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말겨야 해요.

이제 여러분의 어려움을 적었던 메모지를 활동판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적어 붙이는 곳'에 붙여 보세요.

㉨ 1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두 명씩 짝을 지어보세요. 그리고 활동판을 서로 바꾸어보세요. (짝끼리 활동판을 서로 바꾼다.)

이제부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다른 친구들을 의식하지 말고, 짝을 위해서 소리내어 기도해주세요.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준다.)

모두 잘했어요. 활동판을 짝에게 돌려주세요. (활동판을 짝에게 돌려준다.)

㉨ 2 주위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생각할 시간을 준다.)

이 시간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해요.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알고 어려움을 말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기도할 시간을 준 후, 교사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그리고 함께 어린이 캐릭터를 움직이며 보이는 문장을 읽어볼까요?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어려움을 맡겨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의 어려움을 맡겨야 해요. **㉨**

완성된 활동판을 집에 가져가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세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재접착 메모지에 적어 활동판에 붙인 후 예수님께 기도하기로 해요.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어려움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tip 어린이들에게 재접착 메모지를 여유 있게 나누어주고 활동판 뒷면에 붙여 가져가게 하면 더욱 좋다.

기도

하나님, 자연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능력의 하나님께 어려움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어려움을 맡기라!

